

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 가장 많았다...하루 755건 '깡'

최근 3년...연휴 평균 사고건수 461건의 1.6배 수준
졸음·음주·고속도로 사고 모두 연휴 전날이 '최다'

설 연휴 가운데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연휴 전날이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.
경찰청이 21일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, 연휴 기간 하루평균 교통사고 461건, 사상자 795명이 발생했지만 설 연휴 전날 평균 교통사고 755건, 사상자 1096명으로 파악됐다. 연휴

○ 설 연휴 일평균 교통사고 현황

구분	설 연휴 일평균			주말 일평균		
	사고	사망	부상	사고	사망	부상
3년평균	461.4	7.1	787.9	552.0	9.5	887.9

* 설 연휴기간 : '19년(2.1.-2.6.), '18년(2.14.-2.18.), '17년(1.26.-1.30.)

기간 평균보다 연휴 전날의 사고 건수가 1.6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. 음주운전 사고는 연휴 기간 하

루 평균 49건, 사상자 100명으로 평소 주말(60건, 108명)보다 각각 18.3%, 6.9% 감소했다. 일자별로는

연휴 전날(58건, 103명), 설 전날(55건, 111명), 설 다음날(44건, 98명) 순으로 나타났다.
시간대별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에 음주운전 사고의 절반가량(47.4%)이 발생했다.
졸음운전 사고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사고 6건, 사상자 13명으로, 평소 주말(7건, 14명)보다 각각 3.1%, 9.4% 감소했다.
일자별로는 연휴 전날(11건, 20명), 설 전날(8건, 13명), 설 당일(5건, 10명) 순으로 나타났다. 시간대별로는 밤 12시~오전 2시, 오후 2시~오후 4시(각 0.8건), 오후 6시~오후 8시(0.7건) 시간대에 졸

음운전 사고의 36.5%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.
고속도로 사고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사고 12건, 사상자 31명으로 평소 주말(13건, 34명)보다 사고 건수는 8.0%, 사상자는 10.2%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.
노선별로는 경부선(14건), 서울외곽(6.7건), 서해안(5.3건) 순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.
2018년 이후 2년 연속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대폭 감소했다. 이전 10년간(2008년~2017년) 교통사고 사망자 연평균 감소율은 23.8%를 기록했지만 최근 2년간(2018년~2019년) 연 평균 감소율은

21.6%로 2.8배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.
2018년 사망자는 전년보다 9.7% 감소해 42년 만에 3000명대에 진입했다. 경찰청 관계자는 "지난해 교통사고 감소율(잠정치)이 11.5%로 2002년(-10.8%) 이후 17년 만에 두자리 수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"고 말했다.
또 정부는 소방방재청 소방헬기(29대), 보건복지부의 닥터헬기(7대) 및 119급대(350개소), 구난견인차량(2315대) 등을 활용한 관계기관 긴급 후송체계를 구축해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지역별 거점 병원으로 신속하게 후송할 계획이다.

설 연휴에도 광양항은 쉬지 않는다

여수광양항만공사, 항만운영 특별대책 마련



포스코 관련 부두는 설 당일을 제외하고 연휴 기간 동안 하역작업을 진행한다. 공사는 긴급 화물 및 비상상황에 대비해 항만근

설 명절기간에도 광양항은 정상 운영된다.
여수광양항만공사(YGPA, 사장 차민식)는 24일부터 27일까지 '설 연휴기간 항만운영 특별대책'을 마련해 차질없는 항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.
공사는 연휴 기간 중 비상 대기 체제를 운영, 수출입 화물 처리 및 선박 입출항 서비스를 지원한다.
이 기간 원유·석유화학 부두 등 석유화학 관련 부두는 정상 운영된다.
컨테이너부두와 제철·고철 등

로자 긴급 동원 체제를 유지하고, 관련업체 간 휴무기간을 사전에 협의해 하역작업의 혼란과 지연을 방지할 계획이다.
또한 연휴기간 동안 항만의 순찰활동과 보안구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항만 보안태세를 유지키로 했다.
유충호 물류전략실장은 "설 연휴기간 중 항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원활한 항만서비스를 제공하고, 안전 및 보안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귀성 24일 오전 · 귀경 25일 오후

“차 막히는 시간’ 피하세요”

구분	1/22 (수)이전	1/23 (목)방일	1/24 (금)연휴	1/25 (토)설	1/26 (일)연휴	1/27 (월)이후
오전	16.6	6.4	5.6	19.7	4.0	16.6
오후	17.2	2.8	8.5	15.3	4.8	12.2
귀경	0.0	0.0	0.4	7.0	3.6	2.3
귀성	0.0	0.0	2.0	10.8	10.5	10.9
귀경	0.0	0.0	0.5	26.0	26.0	17.5

은 설날인 25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차량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.
10분 △서울~강릉 4시간 20분이 걸린다.
귀경은 △대전~서울 4시간 10분

나흘간 3279만명 이동...88% 차차 이용할 듯
서울~부산 고속도로 이용시 최대 8시간 소요

승용차를 이용할 경우,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△서울~대전 4시간 20분 △서울~부산 8시간 10분 △서울~광주 6시간 50분 △서서울~목포 7시간

분 △부산~서울 8시간 △광주~서울 6시간 30분 △목포~서서울 7시간 △강릉~서울이 3시간 5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.

뉴스1

설 명절 연휴로 다음 호 29일자 발행합니다

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

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.
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.
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게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.

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.
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.
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
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.
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.

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?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
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.
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.

